

영암군, 마한축제 준비 힘찬 첫걸음

추진위원회 위촉하고 본격 준비

군민통합·참여 축제분위기 조성

영암군은 지난 14일,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제6회 마한축제 준비를 위한 마한추진위원회 위촉 및 마한축제추진위원회 위촉 위촉과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회와 문화예술단체장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위원 35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전달, 임원진 구성과 함께 제6회 마한축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등 축제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날 운영회의 결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유인환 위원장,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김진수 부위원장, 전강홍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마한축제 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위원 상호간에 교

환하면서 앞으로 축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오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개최되는 제6회 마한축제는 '마한을 play하다'라는 주제로 마한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계획이며, 지역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화합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미래 마한의 자산인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마한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등 신규 프로그램 10종이 반영되어 총 5개 부문 30종의 프로그램으로 꾸러진다.

또한, 올해는 마한의 대표적 인물인 시종 내동리 쌍무덤에서 마한시대



최상위 수장층 유물인 금동관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물을 발굴하는 큰 성과를 거둔 한해로 제6회 마한축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의미있는 축제로 개최될 전망이다.

전동평 군수는 "제6회 마한축제를 통해 마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 시킴은 물론 마한축제의 위상을 높이

고 품격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종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마한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마한문화공원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본격 출하

청정한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해변포도'라 불리며 미네랄과 당도가 높아 인기인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가 8월 20일경부터 본격 출하된다.

'해변포도'는 8월의 해양지유식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신 내린 과일'이라고 불리며 동시양 구분 없이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과일 중 하나이다.

완도군에서는 해풍의 농업적 이용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실시하였는데 완도 해변포도의 경우 타 지역 대비 기능성 물

질(안토시아닌, 칼리 성분)과 당도가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변 포도를 처음 맛 본 한 관광객은 "다른 지역 포도에 비해 당도가 확실히 높고 끝 맛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서 좋다."고 말했다.

군은 포도 유기 재배 시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등 고품질의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생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완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에서는 앞으로 "해변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해남군, 막바지 폭염 가축 관리 철저 당부

해남군은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가축의 폐사 및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환경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복사열에 의해 축사 내부의 온도가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환풍기 등을 이용해 통풍을 원활히 해주고, 차광막 시설과 단열재, 그늘막 등을 이용해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온도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과 함께 신선한 물과 사료의 공급이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물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고 급수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료는 항

상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사료 연결부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

너무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도록 1주일 정도 분량씩 구매는 것도 요령이며, 기호성이 좋고 영양성분이 높은 사료를 공급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해 준다.

일교차가 큰 경우 사료통 내부에 응결현상이 발생돼 곰팡이 증식이 되기 쉬우므로 자주 청소하고 관리해 유해미생물 증식을 막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위생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먹는 물과 사료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 주는 것을 비롯해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안군, 고객 눈높이 맞는 민원환경 조성 박차

무인민원발급기 이동 설치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 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긴급 이동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 철저해짐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다.

이에 신안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여객선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다중이용 장소에 확대·설치하여 다양한 민원수

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여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것부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주민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민행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금번 이동 설치된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을 비롯하여 신안군 민원봉사과, 지도 점암선착장, 암태 남강 여객선터미널, 안좌북호항 매표소, 흑산 에리항 여객선 터미널 등 총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 푸소체험, 운영농가에서 직접 홍보한다

푸소체험 운영농가 대상 SNS 사용법 교육 실시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푸소체험 운영농가들이 SNS 사용법 교육을 통하여 자가 홍보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푸소체험에

강진군은 지난 14일 SNS를 통한 푸소체험 홍보 필요성에 따라 푸소체험 운영농가 115명을 대상으로 연령대가 높은 점을 감안해 '쉽게 접근하는 SNS 사용법 교육'을 강진군농업

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푸소체험 운영농가들이 SNS 사용법 교육을 통하여 자가 홍보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블로그, 밴드,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푸소체험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글을 작성해야 효과적인 홍보가 되는지 등의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강진군청에서 SNS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홍보

실 송민규 주무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실제 교육효과 높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서금덕 강진푸소체험연구회 수석부회장은 "평소 컴퓨터가 어렵게만 느껴져 활용을 못해 답답했는데,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마련해주신 강진군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SNS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 푸소체험을 알리는 데 더욱 열과 성의를 가져야겠다는 의욕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학동 관광과장은 "최근 대체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 매체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하다"며, "푸소체험 운영농가들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 푸소체험의 홍보에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 푸소체험은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려는 의미로, 농촌 집에서 1박2일 또는 2박3일간 농가와 함께 생활하며 농촌만이 가지는 여유와 따뜻한 감성을 체험하는 전국 유일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체험은 2019년 상반기에 5천951명이 참여하여 5억2천8백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높아진 푸소체험의 인기에 부응하여 홍보주체를 군 중심이 아닌 운영농가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농가별 다양한 농촌민박 및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범위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이루어졌으며, 국민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무안군은 무더위 그늘막과 아이스존을 설치하고,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방송과 안부전화 등의

무안군은 지난 16일 '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무안군 청계면사무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무안군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안소방서 직원들과 전문적인 농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무안군 농촌지도자회가 함께 참여하였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대비하여 실시한 이번 행사는 청계면 주민과 면사무소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에철활동을 하는 등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활동과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라며 "폭염시 행동요령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